

# 비상대책위특보

제 155호

2012년 9월 13일 (목)

## 여야와 방통위는 6월 국회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 '언론 살인마' 김재철에게 언제까지 칼을 맡길 셈인가?

MBC 노동조합이 170일 간의 파업을 잠정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지 벌써 두 달여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9대 국회가 약속한 합의사항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김재철은 공영방송 MBC 죽이기와 파업참가자에 대한 보복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말 19대 국회 등원에 합의하면서 MBC 문제를 새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통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문이 구성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와 여야 합의를 수행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그리고 방문진은 MBC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의 신속한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합의 표류로 계속된 김재철의 망나니 짓

김재철은 그 사이 MBC 내에서 연쇄살인 행각을 그치지 않고 있다. 파업기간 중 이미 6명을 해고하고 38명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가했다. 또 54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김재철은 이어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즉시 보복인사에 착수해, 심야 인사발령을 통해 상당수 조합원들을 본래 직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쫓아냈다. 지역 계열사에서 50여명을 정직 등 중징계했다. 그리고 정관 개정을 통해 지역MBC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려 하고 있다.

김재철의 미친 망나니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직과 대기발령 등 징계기간이 끝난 조합원들에게 다시 교육발령이라는 보복을 재차 가했다. <사내거전 2580>에서 '안철수 편' 제작을 막는데 항의한 기자들을 교육발령을 내 업무에서 쫓아냈다. 자신의 법인가드 사용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일방적으로 대기발령과 1년의 명령휴직에까지 처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 조합원과 가족까지 무차별 사찰 만행

조합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면사찰에까지 나섰다. 트로이카이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깔아 전 직원과 그 가족, 작가와 프리랜서의 이메일과 블로그,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했다. MBC는 이제 김재철이 구성원들의 생각까지 들여다보는 투명한 감옥으로 전락한 것이다.

#### 김재철은 MBC를 3류 방송으로 전락시켜

그 사이 MBC의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미 검증받은 최고의 인력 150여명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파업기간 중 갑작스럽게 투입된 대체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MBC는 3류 방송사로 전락했다. 김재철은 하지만 MBC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보복감정 하나만으로 회사를 망가뜨리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 MBC 살리기 위해 즉각 김재철 해임해야

그런데 김재철 퇴진을 사실상 약속했던 여야와 방통위는 연쇄살인범의 이 같은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와 방통위에게 최후의 경고장을 보낸다. MBC 51년 역사상 김재철 같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가 사장실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김재철의 존재 그 자체로 MBC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고 있다. 공영방송 MBC를 망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적이 아니라면 19대 국회 합의에 따라 김재철을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 김재철 퇴진 늦어지면 옥쇄 각오하고 투쟁

### 여야 원내대표와 방통위원장 면담 요구

정영하 위원장과 정대균 수석부위원장은 어제(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국회를 방문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하 위원장은 "MBC 구성원들이 19대 국회 원내대표 합의와 방통위 비공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업무에 복귀했지만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은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MBC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원장이 조속히 사태 해결해야"

정영하 위원장과 지역 MBC 18개 지부 위원장들은 어제 오전 세종로에 위치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합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하 위원장은 "지금 MBC는 파업기간보다 더 막대한 상황인데 방통위는 MBC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방통위원장은 면담에 응해서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MBC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MBC 구성원들의 큰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옥쇄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대균 수석부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이 지역 MBC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MBC 이사진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역MBC 구성원들은 이를 저지하고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MBC는 포로수용소, 감옥과 다름없어"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MBC의 모습은 포로수용소-원형 감옥과 같다. 사내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고 불법적인 통신감청이 이뤄지는 회사가 언론사의 모습이나?"고 일갈한 후, "PD수첩"이 사실상 폐지되고, 삼천교육대식 강제교육이 진행되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올리는 듯 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 "김재우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MBC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는 왜 존재하는가. 9월까지 MBC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여야 원내대표 면담 요청, 합의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계철 방통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정영하 위원장과 전국 18개 지부 위원장들은 『언론 살인마 김재철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경위들의 제지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정영하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여야 합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히고, 정대균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면담은 추후 성사될 전망이다.

###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성숙'은 불가능한가?

징계, 교육, 부당전출 등 김재철이 갖가지 명목으로 취재 현장에서 축출해버린 60여명 기자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어제(12일) 자 회사 특보를 통해서다. 축출된 기자들에 대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밝힌 인식 수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가 본부장이 된 뒤 지난 7개월 가까이 벌어진 참사 이후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행태들에 대해 일말의 자기 성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권재홍 본부장은 오히려 쫓겨난 기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적반하장식의 언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 사람인지, 저런 생각으로 어떤 뉴스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할만 한 수준이다. 권 본부장의 언급과 관련해 MBC 기자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문을 소개한다. 소재목은 편집자가 붙인 것이다.

#### 과연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누구인가?

'허리'우드 액션의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또 일을 냈다. 어제(12일) <MBC 특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보도국 기자들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머리가 뜨거운 상태이므로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주 2차 대기발령자들에게 대한 무더기 교육발령과 시사제작국 기자 3명에 대한 인사태러가 있고 나서 기자 조직의 최고 책임자라는 이가 보여준 인식의 수준이다.

권 본부장에게 묻는다. 신사옥 건설 현장으로, 광고 영업으로, 세트장 관리로 쫓겨난 기자들이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가? 정년을 앞둔 기자와 MBC뉴스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기자들이 잠실에 모여 샌드위치 만들기를 교육받고, 국악의 세계로 안내받으면서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하루하루 분부(憤滅)를 삼키고 있는 그들, 인격적인 모멸감과 우울증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차마 위

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와 같은 조롱을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 협박과 조롱, 구성원 인격 능력 작심했다?

<시사매거진 2580>의 고형승, 김희웅 기자와 <경제매거진>의 전영우 기자에 대한 '3개월 교육' 발령은 파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은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것도 아니다. 국장 정책설명회에서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중복좌파 기자'라는 부장의 폭언에 적극적으로 항의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껄꺄럽다'는 부장의 의견에 따라 하루아침에 마이크를 내려놓아야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신권의 남용이다. 게다가 타 부서로의 이동도 아닌 '교육 발령'을 냈다는 것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서 기자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MBC 기자 전체에 대한 협박이다.

#### 성숙해져야 할 사람은 권재홍 본부장이다.

권 본부장은 위 인터뷰에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라고 본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는 식으로 편 가르키는 안 된다. 철저히 일로 승부해야 한다... 보다 성숙해져야 할 문제이다."라는 말도 했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의심스러우나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 말이 되돌려 주고자 한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편을 갈라 타 부문으로 축출하고, 부서를 없애고, '삼척 교육대'로 보내선 안 된다. 철저히 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권재홍 본부장은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2012년 9월 13일 MBC 기자회

### 김재철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 공론화

어제(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에서 김재철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규명할 청문회 개최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어제 회의에서 야당 측 간사인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MBC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때문에 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면서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사 양측을 출석시키는 청문회가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에 이어 발언에 나선 한명숙 의원은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MBC의 최근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야당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철의 은갖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국회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 논의가 공론화됨에 따라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 '김재철의 MBC' 만 정준길 의혹 속보를 사실상 누락 편파 보도 합리화 궤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안철수 교수에 대한 불출마 협박의혹의 당사자인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이 당초 주장처럼 운전 중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가다 고성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증언을 어제(12일) 사실상 시인했다. 정준길 씨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에서 밤늦게까지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이 소식은 어제 하루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KBS <9시 뉴스>가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 사안을 별도 리포트로 다루고 SBS는 <8시 뉴스>에서 안철수 교수의 출마 움직임을 다루면서 비중을 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MBC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 11연승 소식 맨 뒷부분에 한 문장만 달랑 달아 면피성 보도를 하는데 그쳤다. 왜 그랬는지는 굳이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

을 정도로 뉴스 가치 판단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외면한 비상식적 보도 태도였다.

우리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발견되는 파행과 비정상적 편집이 김재철의 자리 연명을 위한 구차한 생존 전술과 무관치 않다고 확인한다. 자신의 자리보전에 위해 뉴스를 사유화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MBC 구성원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면서 향후 뉴스 보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힌다.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궤변을 일삼으며 외논박이 시각의 편파 불공정 보도를 합리화하는 그릇된 행태가 언제까지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청자를 바보로 여기는 뉴스는 반드시 시청자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 차라리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철진 국장을 징계하라!

김철진 일당의 집요한 탄압 표적이 되고 있는 시사교양 PD들이 <금요와이드> 사태와 관련해 PD 3명을 정직의 중징계에 처한 폭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PD들은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이며 김 국장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PD 3명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김재철 측이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중대한 도발이며 명색이 언론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조합은 MBC를 동토의 겨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김재철 일당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성명의 전문을 게재한다. 소재목은 편집자가 붙인 것이다.

<생방송 금요와이드>팀 2명의 PD가 일방적인 불방 조치를 당한 것도 모자라 결국 정직 3개월,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새내 기사판에서 이들의 정당함을 주장한 PD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저녁에 이런 징계가 나오고 김철진 교양제작국장과 김시리 담당부장이 사이 좋게 식사하러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또 세 명을 해직했다고 회식이라고 한 것인가? 한 명 해직을 때마다 인센티브라도 받는 것인가?

불방 조치도 모자라 이런 내용은 '다시는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는 것,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오리걸음', '한강철교' 등 열차 여행을 가한 사건이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15년차 직원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기기도 했다. '열차 여행' 사진이 확보됐고, 직원들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린 자들은 '노사문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여기까지 왔다.

#### 앞으로 노사와 인권문제는 다룰 수 없다는 뜻인가?

취재와 편집을 맡은 PD는 담당 부장과 방송 전담 '편집을 보고 결정하자'고 협의했고 방송 당일 시사했다. 내용에 대해 토론을 거쳤으나 결국 눈물을 삼키고 불방 지시에 따랐다. 어디에 지시불이행이 있는가? 3개월 징계를 당한 프로듀서는 <생방송 금요와이드>를 최초로 기획하고 줄곧 데스크 역할을 맡았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이템 및 취재를 결정하고, 담당 부장에게 방송 전담 방송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왔다. 이번 아이템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어떻게 지시불이행과 사내질서 문란인가?

징계의 사유는 직원에게 오리걸음교와 한강철교를 사기는 상황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시사교양PD의 당연한 문제의식뿐이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에 노력해 지역, 계층 간 융화가 앞장선다."는 MBC 방송강령을 준수한 행동이 과잉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라면 열차 여행을 사기는 폭행을 하는 MBC에서는 절대대로 다룰 수 없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징계판이 아니다. 며칠 전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문제제기를 자주 한다'라며 프로그램 개발팀의 중진 PD를 '3개월 교육' 발령했다. 업무복귀 후 동료들을 대변해 프로그램 정상화와 합리적인 국 운영을 요구한 PD는, 시끄러우니 MBC 아카데미에서 브런치만 만들고 있으라는 것이다. 역시 김시리 담당부장의 소원 수리를 해준 것이다. 새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PD를 난데없이 교육 발령 내는 것이 '방송 정상화'를 위한 것인가?

#### 김철진은 25명의 PD를 학살한 하수인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조개진 시사교양국은 업무복귀 전후로 해고 1명, 정직 7명, 교육 10명, 강제발령 7명 등 통틀어 25명의 PD가 복귀인사를 받았다. 시사교양PD 조합원 중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동 속에 떠돌고 있다. 이것은 학살이다. 그리고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25명을 학살한 총살한 대리인이다. 본인의 무능력 무책임을 감추고 조직원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김철진을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2012년 9월 13일 시사교양 PD협의회

### 부당전출 취소 가처분 결과 10월 중순으로 연기 불리함 느낌 김재철 측, 자료 제출 지연작전 구사

김재철의 악랄한 부당전출 보복인사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당전출 취소 가처분 신청의 종결 심리가 어제(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어제 종결심리는 부당 전출 조합원을 대리한 조합 측 변호인과 김재철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 어제로 심리는 종결됐으나 김재철 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판사는 10월 3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김재철 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모로 심리 과정에서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치졸한 시간 끌기 작전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연기 결과가 나올 것인만큼 당초 예상과 달리 가처분의 인용 여부 등 법원의 판결은 10월 중순 쯤에야 나올 전망이다.

#### 논리 근색한 김재철 측, 억지 답변 일관

김재철 측은 작년 이우환, 한하수 PD에 대한 부당전출 폭거와 관련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47명의 직종을 강제 변경하고 부당 전출하는 폭거를 또 자행했다. 김재철 측은 심리 과정에서 차경호 현 대구 MBC 사장이 신사옥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할 사례 등을 들어 기자와 PD를 신사옥건설국으로 발령낸 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담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는 등 향후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